

문-안, 이르면 오늘 ‘새정치공동선언’

단일화를 협상 개시... 두 후보 ‘3+3’ 협상단 인선 마무리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를 진행 중인 민주통합당 문재인,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가 12일 단일화 방식 협의 임박을 완료하고 다음날인 13일 단일화 방식 협상에 본격 착수한다.

또 문, 안 후보는 단일화 첫 단계로 지난 8일부터 진행된 ‘새정치 공동선언’도 성안 작업을 거쳐 13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

두 후보는 야권 단일 후보 고지를 잡기 위한 ‘게임의 룰’ 설정을 놓고 일전을 벌인 ‘3+3’ 협상단 진용을 이날 확정했다.

문 후보 측에서는 박영선·윤호중·김기식 의원이, 안 후보 측에서는 조광희 비서실장과 금태섭 상황실장, 이태규 미래기획실장이 각각 협상 테이블에 마주앉게 됐다.

문 후보 측의 경우 과거 협상 경험 등을 감안해 전원이 현역으로 채워졌다면 안 후보 측에선 ‘복심’으로 불릴 정도로 안 후보의 의중을 잘 아는 최측근 그룹을 주축으로 철저히 실무 위주로 인선이 이뤄진 게 특징이다.

문 후보 측은 중앙급 있는 현역 의원 배치로 협상력을 배가한다는 전략인 반면 안 후보 측의 경우 비(非)민



박영선 윤호중 김기식 조광희 금태섭 이태규

주당 출신 ‘올사’들을 전진 배치, 과거 인연 등에 얽매지 않은 채 협상 주도권을 잡기로 했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안 후보 측 박선숙 공동선대본부장은 브리핑에서 “원칙과 방향이 중요하다”며 “(과거) 경험의 특이 필지, 특이 필지는 알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 측 협상팀장인 박영선 의원은 “국민이 공감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단일화를 할 것”이라며 ‘국민 참여’ 원칙을 거듭 강조했다.

반면, 안 후보 측 협상팀장인 조비서실장은 공동동 캠프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이기는 결과를 얻도록 하겠다”며 ‘본선 경쟁력’에 방점을 뒀. 향후 불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13일 첫 접촉을 갖고 본격적인 세부 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두 후보가 합의한 후보 등록일(25~26일) 이전에 단일화를 성사하려면 시일이 촉박한 만큼 양측 모두 합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두 후보의 새정치와 정권교체를 위한 정치·정당개혁과 국민연대 방안 등을 담은 ‘새정치 공동선언문’은 이르면 13일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실무팀은 이날 오후 비공개회의를 하고 이견이 있는 국회의원 정수 축소 및 중앙당 폐지 문제 등에 대한 절충점을 마련하고 선언문 성안을 완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불 협상과 동시에 가동될 경제복지, 통일외교안보 정책팀의 협상

단도 대진표가 갖춰졌다. 경제민주화 등의 ‘공약수’를 주된 경제복지 분야에선 양측의 경제정책 ‘수장’인 문 후보 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과 안 후보 측 장성현 국민정책본부장이 협상 파트너로 만났다.

또 문 후보 측은 부동산정책 전문가로, 참여정부 시절 환경부 차관을 지낸 김수현 세종대 교수가, 안 후보 측에선 ‘두 바퀴 경제론’의 핵심축인 혁신경제의 밑바탕을 그린 홍준호 서울대 교수가 팀에 합류했다.

통일외교안보정책 분야의 경우 문 후보 측에선 김기정 연세대 교수와 홍희표 의원, 안 후보 측에선 국정자문단 소속의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과 이봉조 전 차관 간 체력이 가동된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투표시간 연장 108배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광주전남시민행동' 회원들이 12일 오후 광주역 광장에서 차별 없는 참정권 실현을 주장하며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108배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김종인 전격회동 불구 경제민주화 갈등 심화

박근혜, 대선전 악재 부상?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와 대표적 대선공약인 경제민주화의 입안자인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김 등이 심화되면서 대선전의 악재로 떠오르고 있다.

박 후보는 11일 기존 재벌 순환출자 규제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온 김 위원장과 전격 회동, 경제민주화 정책의 공약확정을 위한 의결을 교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후보와 김 위원장의 회동은 이날 중앙선대위 전체회의의 직전 1시간 가량 시내 모처에서 이뤄졌다. 이 지

리에서 김 위원장은 기존 순환출자의 경우 의견권 제한 필요성을 설명했으나 박 후보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 기존 순환출자 유지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후보와 김 위원장의 시각차는 경제민주화와 경제성장의 균형, 재벌 관련 규제의 소급적용 문제 등에서 나타난다. 또 박 후보가 대기업집단법 제정, 대기업 경제법외 국민참여재판 의무화 등 국민행복추진위의 고강도 대기업 개혁안을 제외한 재경 경제민주화 정책을 제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은 물론 그동안 경제민주화 정책에 참여한 인사들이 반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서는 두 사립의 결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김 위원장이 박 후보와의 경제민주화 갈등 때문에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김 위원장이 대선을 앞두고 위원장직을 내놓을 경우 그동안 박 후보의 경제민주화 이슈 선점 효과가 사라지는 동시에 대선국면의 또 다른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문 “통큰 모습 보이겠다” 안, 부산 민심잡기 올인

단일화 국면 유불리 집착 않고 국정운영 능력 부각

지지가만 확대 단일화 주도권 확보 주력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야권의 후보단일화 협상 국면에서 ‘통큰 모습’을 보이는 한편, 새해 예산 및 입법과제 점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정운영 능력을 부각시키고 있다.

문 후보는 12일 중앙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단일화 협상과 관련, “마음을 비우고 임하겠다”면서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통 큰게 국민을 보고 나가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안 후보측에 대한 네펴티 공격 금지령을 내렸다. 그는 이어 “음식을 많이 먹을 수 있는 건 큰 그릇이 아니라 빈 그릇이라는 성경 구절도 인용, 마음을 비우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단일화 국면에서 유불리에 집착하지 않는 대승적 면모를 통해 유권자의 표심을 파고드는 한편으로 단일후보 확정 이후 생길 수 있는 이탈

층을 최소화하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와 함께 문 후보는 영등포 중앙당사에서 열린 ‘책임있는 정부, 책임있는 대통령’이라는 주제로 열린 회의에서 ▲서민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부자감세 철회 및 대기업·고소득자 세율 확충 ▲4대강사업 대폭 축소 및 복지 예산 증액 ▲반값 등록금·최저임금법 등 관련 법안 처리 등을 새해 예산 심의의 4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한편, 이상호 공동단장은 브리핑에서 “지지도, 적합도, 경쟁력 조사 등 전제적 흐름에서 상승세로, 본선 경쟁력이 확인되고 있다”며 “범야권 지지층이 문 후보의 안정감과 적합도를 주목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는 12일 이틀째 부산 방문 일정을 이어 가며 지역민심 잡기에 전력투구했다. 특히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정수장학회 논란과 해양수산부 폐지, 경제민주화 후퇴 등에 대해 작심한 듯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자갈치 수산 시장을 방문해 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제갈 경기 상황에 대해 들었다. 그는 상인 대표들과 아침 식사를 함께하면서 “선거 때만이 아니라 대통령이 돼서도 현장을 방문하는 것은 중요한 시간”이라면서 현장 중심을 강조했다. 이어 정수재단과의 투쟁 상황을 지면에도 실었다는 이유로 최근 사측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이정호 전 부산일보 편집국장을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정수장학회 중

심에 박 후보가 있다는 걸 모든 국민은 알고 있다”며 “전 세계 언론에서 다 다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국격이나 품격을 위해서라도 박 후보가 스스로 해법을 제시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이어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지역 기업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2008년 해양수산부 폐지 없었더라면 부산을 멈추지 않았다”라면서 비판을 멈추지 않았다.

안 후보의 이같은 행보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의 본격적인 단일화 국면에서 지역 지지 기반 확대를 통해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동시에 사실상 새누리당의 텃밭인 부산에서 박 후보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최인기 전 의원 “문재인 지지”

선대위 지역특위위원장 맡아 정권창출 동참



라는 시대 정신의 실현은 두 차례나 수권 능력을 보여줬던 민주당만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인기 전 국회의원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하고 중앙선대위 지역발전특위 공동위원장을 맡아 제3기 민주정부 창출의 전면에 나섰다.

최 전 의원은 12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 최고위원과 정경위의장을 지내면서 민주당의 수권정당화를 노력해 온 사람으로서 제3기

민중정부 창출을 위한 시대적 소명에 기꺼이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사회·경제 양극화가 심화되면서 국민적 갈등과 분열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여기에 국제 경제 위기도 심각한 현실에서 국민 통합, 경제 민주화, 보편적 복지

최 전 의원은 “과거 야권의 통합 과정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며 “이번 대선에서의 정권 교체는 현실화하기 위해서 호남 민심과 함께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정상 · 급매

수기동 제일 오피스텔(사무실전용)

1. 20층 건물 중 20층 코너, 100평
2. 3면이 통유리로 전망 좋음
3. 주차 5대 무료, 대형주차장
4. 실내인테리어 2000만원 소요
5. 용자 8천만원 ~ 1억원 정도 가능
6. 현, 보 2천만원에 월 150만원 임대중
7. 급매가 2억 2천만원(시세 4억 5천만원)
8. 일시불 매매시 조정가능

문의 : 010-3605-5000

못 받은 돈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무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세일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

철학연수원

수강연수 강의로 무료!

현재 무숙인 역술철학 운영자 환영!

- 수강종목**
- 사주명리** 기초부터 완결까지 6개월
- 자미두수** 천문별빛의 굴절과 인간의 운명, 노력의 결실과 숙명의 한계성 강의, 경전동지할 비술의 세계, 기초에서 완결까지 6개월
- 풍수지리** 실전풍수의 음양택비결, 땅의 성질이 실로 지향하는 바가 정녕 무엇이며, 그 진실과 허상을 증명해 간다. 기초에서 완결까지 6개월

禪의 길
조작되는 인간의 뇌파와 우주관, 과연 도당은 일도 숙명인가? 도의 구체적인 진상은 담고 가공해서 만들어 내는 예술품이 아니다. 담고 가공해서 만들어 내는 예술품이 아니다. 인식이 증명되는 과정의 지혜강의

수강신청 및 강의시간(포괄적 강의) 자격제한 없음
매주 수 토 일 오후 2~5시

강의 장소
전남 담양군 남면 지곡리 95-2
(광주세 상류 소재원 주차장 아래 하천변)
철학연수원(차차공방집)
TEL 061-383-7222 HP 010-4178-8830
강사 柳無山居士

맘몰려 애써 보람을 찾는 남·여시원을 모집합니다.
텔레마케팅 ... 0명 업무직 ... 0명
지역담당 ... 0명 관리직 ... 0명
위와 같이 모집하오니 이력서 지참 방문하시거나 우편접수 가능합니다.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197-30

성공을 부르는 말하기 기술 http://www.kleader.kr

스피치 리더십 과정

제24기 수강생 모집!

말 잘하게 하는 특별한 방법
어머니 스피치 교실
제 3기 수강생 모집

초·중·고 대학생 등을 위한 맞춤형 스피치교육
스피치교육은 단순히 스피치만 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스피치를 잘하게 됨으로써 교육관계에서 리더가 되고 자신감을 갖게 됨으로써 공부도 열심히 하게 되어 성격도 올라가게 되며 성격이 적극적으로 변하는 등 인생이 변하게 됩니다. 스피치 트레이닝을 빨리 할수록 효과가 월등해 집니다.

교육지사·가맹점 모집 중
☎062)222-2255 / HP, 010-9441-7000
한국스피치리더십교육원 | 전화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문을 우송하여 드립니다.